

물 · 수변잡담



김 석 현 |
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과장(부이사관)
kimsh56@korea.kr

1. 들어가며

많은 사람들이 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자는 유장한 강물의 흐름에서 삶의 지혜를 발견하고, 시인은 석양빛 노을에 비치는 호숫가에서 아름다운 서정미를 찬양하며, 제방 옆 동네 사람들은 밤새 내린 비 때문에 불어난 강물로 둑 터질까 가슴 졸이고, 착한 농부는 바삭 마른 논바닥에 가슴이 먼져 타들어가며, 가끔씩 물고기의 안부가 걱정스러운 환경도덕 군자들은 무언가 물에 문제가 있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무장하여 약간은 기묘하지만 결연한 표정으로 정부를 나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 지루할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정부 관리는 세상에서 가장 재미없는 방법으로 물 이야기를 주절대고 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정치인, 경제학자, 사회학자, 생물학자, 부동산업자, 기자, 자연주의자, 기후학자, 심지어 물 전문가조차 우리나라 물 문제에 나름 많은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토록 서로의 진단과

치방이 달라서 안 그래도 지적수준에 상당한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우리 정부 관리들을 더욱 요령부득하게 하고 있는지요?

똑같은 한국말을 하고 있는데도 말이 안 통하는 경우가 많다고 우리는 자주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우리가 쓰는 말은 언어 구조만 같을 뿐 씌어진 단어와 문장을 해석하도록 하는 인간 컴퓨터 BIOS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부팅되어 내장되어 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미묘한 차이점은 각 개인이 살며 겪어온 주변 환경과 경험이 축적되어서 자신만의 독특한 취향으로 체화되어 자신과 교감 DNA가 같은 끼리끼리만 공유되는 언어로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러한 결과 우리는 일상적으로 쓰는 가치중립적인 ‘특정단어’에 대해조차 어떤 사람은 ‘이렇게’ 또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해석한 뒤 각자 언어의 요새를 만들고 심지어는 윤리적 당위성까지 덧칠하여 이슬람 근본주의 같은 이데올로기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호랑이 꼬리라도 잡고 있는 듯한 황당한 표정으로 수자원정책을 거대담론처럼 논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는 물이야기의 가장 처음 단계부터 차근차근 따져보는 것이 순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면 쪼그리고 앉아 나무만 따지고 있는 저를 포함한 많은 이들에게 고개를 들고 눈을 떠야 숲을 볼 수 있다는 단순한 원칙을 상기시켜 줄지도 모르겠고 어쨌면 물을 사랑하면서도



사랑하는 방법이 너무 달라 서로 께려보기만 하는 우리들에게 잠시나마 서로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줄 행운이 올지도 모르겠다는 무모한 희망을 가지며 다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 다음

하나 : 홍수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사실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조선실록 등의 역사 자료에 따르면 현 남대문까지 한강물이 범람해 올만큼 큰 홍수들이 수도 없이 많았고, 60~70년대만 하더라도 상당수의 하천주변이 매년 상습적으로 침수되어 많은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옛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홍수로부터 안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경제발전과 도시개발로 안양천과 중랑천 같이 버려두던 대부분의 토지들이 지금은 값비싼 도시로 바뀌었거나 바뀌는 중에 있습니다. 토지가 비싸게 또 조밀하게 이용되는 만큼 홍수범람이라도 한번 당하면 그 피해는 천문학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 정도를 옛날과 단순비교 할 수가 없습니다. 차이를 따지자면 옛날의 홍수는 사람이 살고 죽는 생존의 문제였고 지금은 경제적인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홍수피해의 성격이 바뀌었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둘 : 가뭄피해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역시 사실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옛날 역사자료에는 가뭄으로 초근목피 목불인건이라는 구절이 많습니다. 기억력에 특별히 큰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았다면 가까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웬만한 고지대에서는 물 한두 통 받아가려고 하나밖에 없는 수도꼭지 앞에 수십 미터 줄서서 기다리는 것이 일상의 일이었다는 것을 생생히 기억할 것입니다.

생활수준이 올라가며 수세 화장실, 샤워, 세탁 등 옛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은 물 사용이 풍부해졌습니다.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던 각종 물건들을 만드는 공장에서, 또한 도시를 제대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많은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늘만 쳐다보던 천수답에 비도 오지 않는데 물을 대서 벼를 키우고 한 겨울 비닐하우스에서는 물 걱정 없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러한 풍부함속에서도 어쩌다 가뭄이라도 들면 물 공급이 줄어들어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때로는 정치 공학적으로) 피해가 엄청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의 가뭄은 생존을 위한 벼농사의 문제였고 지금은 경제가 타격을 입고 생활이 크게 불편하며 불만 표출도 커집니다. 옛날과 같은 차원에서 단순 비교할 성질이 아닙니다. 피해의 성격과 삶의 질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셋 : 우리나라는 물이 부족하다?

역시 사실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한강에 저렇게 많은 물이 흘러가는데 사람들이 쓰는 물이 얼마나 된다고 정부가 저렇게 물 부족이라고 우겨대는지 많은 사람들이 반신반의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모조모 따져보기 보다 감각적으로 느끼는 최초의 일감을 더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더라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기껏해야 일반 국민들의 물 부족에 대한 고정관념은 아마도 어느 날 갑자기 수도꼭지에서 물이 안 나오면 어떡하나 제한급수라도 하면 불편해서 어떡하나 정도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복잡한 설명과정을 생략하고 총량적인 물 부족만을 정부가 주장하다 보니 사람들에게는 일상 접하는 수도꼭지물이 물 부족을 나타내는 바로미터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가끔 방송 다큐멘터리에서 보여주듯이 아프리카 주민들이 마실 물을 구하기 위해 애쓰는 처절한 장면, 한국수자원공사가 고속도로 휴게소 공중화장실에 열심히 붙여 놓

은 물 절약 스티커도 어느 정도 이러한 관념을 심어 주는데 일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 큰 가뭄(20~30년에 한번 정도는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가뭄)만 아니라면 가정과 공장 도시에 공급하는 물 부족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동안 여러 개의 다목적댐을 건설하고 전국적으로 상수도 시스템을 크게 확장하여 소위 수도파이프로 공급받는 지역은 볼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수준입니다. 물론 최근의 태백시나 연안 도서지역처럼 상습 가뭄지역은 평상시에도 물 부족이 불편한 현실이지만 전국적 차원에서 보면 예외적인 사례이고 이들 지역은 별도의 대책으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말하자면, 가뭄도 들지 않았는데 열심히 가정과 도시에서 물을 절약하는 것은 사실상 영구 순환자원인 물을 절약했다기 보다는 강물을 취수하여 깨끗한 물로 정수해서 파이프 공급하는데 들인 전기에너지를 절약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저를 포함한 국토부 관리는 입만 열었다 하면 최근 지구적 아젠다인 기후변화까지 들먹이며 물이 부족해질 거니까 물을 더 확보해야 하고 물 확보를 위해서는 댐을 더 만들어야 한다고 환경 도덕론 자들과 호시탐탐 비난거리를 찾는 언론으로부터 뻘뻘 혼날 줄 알면서도 겁도 없이 되풀이 주장하고 되풀이 비난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자원정책의 일부를 담당하는 저를 포함해서 정부 관리가 아둔하거나 판단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거라고 국민들이 아주 생각을 굳혀 버릴까봐 지금부터 약간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설명과정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물 부족에 대한 이해를 얻기 위해서는 약간의 지루함을 참을 수 있는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문제입니다. 특히, '감각적 순간의 판단'에 익숙한 우리 특성상 그러한 호의적 인내심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지만 일단 한번 시도는 해보겠습니다.

군대가 전쟁 시를 대비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것처럼 수자원 계획 역시 평상시가 아닌 20~30년에 한번 정도 발생가능성이 있는 제법 큰 가뭄이 올 때

를 상정하여 계획을 세웁니다. 강수량 변동 폭이 완만한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는 강수량의 변동 폭이 계절별, 연간별로 심하게 들쭉날쭉해서 홍수와 가뭄이 일단 들었다하면 매우 심하게 듭니다. 비가 적게 오는 가뭄에는 강물이 줄고 물 공급 능력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가뭄이 들더라도 이미 일상적으로 사용 패턴이 자리 잡힌 생활, 공업, 농업용수를 대폭 줄일 수는 없어 사실상 물 수요는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심각한 수준이라 해보아야 제한급수나 공장 조업단축 정도이지 옛날 조선시대로 돌아갈 정도로 줄일 수는 없습니다. 즉 '물 부족'이라는 개념은 필요로 하는 수요는 평상시와 비슷한데 가뭄이 들어 공급 가능한 수자원 양이 적은 해를 기준으로 물이 부족하다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일반 국민들이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매우 중요하고도 물 부족을 초래하는 본질적인 물수요가 하나 버티고 있습니다. 섬세한 논리로 결연히 무장한 분들이 1인당 생활용수(1pcd) 가지고 콩나물값 시비하고 있을 때 옆에서는 황소 값 흥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천유지유량의 개념입니다. 이름이 좀 난해한 것 같지만 실체는 하천을 그냥 흘러가서 바다로 가는 물을 말합니다. 생활·공업·농업용수로 이용하기 위해 취수하는 물이 아니고 강에서 물고기와 수생식물이 편히 살아가도록 생태계를 유지하며, 어쩔 수 없이 강물이 다소 오염되더라도 자정작용이나 희석으로 수질을 개선하여 생활·공업·농업용수의 취수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하천경관을 아름답게 하여 사람들이 하천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등 강을 강답게 하는 원초적인 물 수요입니다. 이 유지용수가 하천에서 취수하는 생활·공업용수량을 합친 것보다 훨씬 많이 흘러가야 하천이 삽니다.

유지유량은 우리 일상에 직접 취수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하천 경관이나 생태계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하천에 흐르는 물을 박박 긁어서 사용하자고 우긴다면(불행히도 많은 하천이 봄철 갈수기에 이미 이런 지경에까지 왔지만) 우리나라는 현



제의 시설만으로도 수도권에서 물이 안 나올 정도의 물 부족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중동의 사막국가나 아프리카의 극한적인 자연조건도 아니면서 우리 강들을 그토록 야박스럽게 대우할 것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창하게 생태환경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최소한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물고기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3·(←)4월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기후가 비슷한 일본도 비가 적게 오는 갈수기입니다. 우리나라 하천 대부분이 바닥이 들어나거나 도랑처럼 가난스러운 흐름으로 졸졸거리고 있을 때 일본의 하천에서는 풍성히 흘러가는 맑은 하천에서 가마우지(새)를 이용해 은어 잡는 축제를 열고 시민들이 배타고 강을 즐기고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꼭 한번 가보십시오. 왜 그런지를. 자연을 사랑하는 것은 좋는데 사랑하는 방법상에 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닌지도 다시 한 번 꼭 생각하시고.

넷 : 물을 잘 못 관리해서 수질이 나빠졌다?

물 관리의 대상범위를 어디까지로 보느냐에 따라 대답이 달라집니다. 하천을 관리하는 자에게 오염물질까지 모두 관리할 능력을 부여한다면 그 말이 맞습니다. 강물이 오래도록 강에 머물렀다고 노인처럼 나이가 들어서 수질이 나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강으로 들어오지 말아야 할 오염물질이 강으로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물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집에서 버린 생활하수, 논밭에 뿌린 농약과 비료, 가축분뇨, 공장에서 나오는 중금속, 집 앞과 도로에 몰래 갖다 버린 쓰레기 등등(←) 이러한 것들이 슬금슬금 강으로 들어와서 강물이 골병들어 가는 것입니다.

강 자체는 유지유량으로 희석하거나 자정작용을 통해 다소의 수질개선을 하고 있으나 이것도 정도의 문제이지 강으로 들어오는 오염물질 용량이 많아지면 불감당이 됩니다. 정말 더 솔직히 말을 한다면, 온갖 비난을 받고 있는 콘크리트가 하천제방에 덕지 덕지 발라졌기 때문에 하천생태계가 훼손되고 수질

이 나빠진 것이 아니라 하천에 물이 너무 적게 흐르거나 더러운 오염물질이 속절없이 흘러들어 오기 때문에 하천 생태환경과 수질이 고생합니다. (그렇다고 아예 콘크리트로 단장해버린 파리의 센 강, 런던의 템스 강처럼 하자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수질은 하천 바깥에서 오염물질 관리를 얼마나 잘했는지를 웅변으로 나타내는 결과물로서의 바로미터입니다. 수량과 수질의 첫 글자가 같은 물(水)로 시작한다고 해서 똑 같은 차원의 물관리가 아닙니다. 즉, '수질관리'는 깨끗한 하천이 하수도로 타락하지 않도록 하기위한 오염물질 관리이고, '하천바깥에서의 오염물질 관리'라는 직접적이고 긴 표현보다 좀 우아하게 쓴 네이밍 기법상 표현이지 물 관리는 아닙니다.

3. 나가며

최근에 누군가로부터 들은 우리민족 위대함의 몇 가지 속성 중 하나입니다. “우리민족은 매번 똑 같은 홍수와 가뭄피해를 되풀이 당하면서도 별 다른 준비 없이 또다시 한판 붙어보자고 자연과 끊임없이 맞장 뜨는 지구상의 유일한 종족” 이라고 합니다. 좀 과장된 말이지만 생각해 볼 여지가 많은 표현입니다. 2005년 허리케인으로 뉴올리언즈 제방 붕괴 시 엄청난 인명과 재산피해로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된 미국의 사례를 강 건너 불구경만 하기에는 우리사정도 그리 녹록치 않습니다.

안 보면 멀어지듯이 자주 만나야 친해진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같이 할 우리의 자연, 우리의 강과 친해지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손도 못 대고 고이고이 모셔두거나 다시는 안 볼 것처럼 내버려두는 것은 그리 썩 좋은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을 좀 다독거리고 어루만져 주는 것이 자연과 친해지며 더불어 사는 진정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 중의 하나가 4대강 사업입니다. ☹